

# 잡아함61 분별경

날짜: 2월 2nd, 2024

출처: <http://www.dhamma.kr/wp/?p=17657>

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.

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.

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.

“5수음이 있다. 어떤 것이 다섯 가지인가? 이른바 색수음과  
수수음 · 상수음 · 행수음 · 식수음이니라. 어떤 것이 색수음  
(色受陰)인가? 존재하는 색, 그 일체는 4대이거나 4대로 만  
들어진 색(色)이니, 이것을 색수음이라 하느니라. 또 그 색은  
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. 만일 그 색수음을  
남김없이 영원히 끊고, 끝까지 버리고 떠나며, 완전히 없애고,  
탐욕을 떠나며, 고요히 사라지게 한다면 다른 색수음이 다시  
는 이어지지 않고, 일어나지도 않으며,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.  
이것을 묘함[妙]이라 하고, 고요함[寂靜]이라 하며, 버리고 떠  
남[捨離]이라 한다. 그래서 남아 있던 애정[愛]은 다하고 탐욕  
[欲]이 없어지며 번뇌가 완전히 소멸해 열반을 얻느니라.

어떤 것이 수수음(受受陰)인가? 이른바 6수신(受身)이니,  
어떤 것이 여섯 가지인가? 곧 눈으로 부딪쳐 생기는 수(受)와  
귀 · 코 · 혀 · 몸 · 뜻으로 부딪쳐 생기는 수이니, 이것을 수수  
음이라 한다. 또 그 수수음은 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  
는 법이다.……(내지)……번뇌가 완전히 소멸해 열반을 얻느  
니라.

어떤 것이 상수음(想受陰)인가? 이른바 6상신(想身)이니, 어떤 것이 여섯 가지인가? 곧 눈으로 부딪쳐 생기는 상(想)과 귀·코·혀·몸·뜻으로 부딪쳐 생기는 상이니, 이것을 상수음이라 한다. 또 그 상수음은 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.……(내지)……번뇌가 완전히 소멸해 열반을 얻느니라.

어떤 것이 행수음(行受陰)인가? 이른바 6사신(思身)이니, 어떤 것이 여섯 가지인가? 곧 눈으로 부딪쳐 생기는 의도[思]와 나아가 뜻으로 부딪쳐 생기는 의도이니, 이것을 행수음이라 한다. 또 그 행수음은 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.……(내지)……번뇌를 완전히 소멸해 열반을 얻느니라.

어떤 것이 식수음(識受陰)인가? 이른바 6식신(識身)이니, 어떤 것이 여섯 가지인가? 곧 눈으로 인식한 식과 나아가 뜻으로 인식한 식이니, 이것을 식수음이라 한다. 또 그 식수음은 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.……(내지)……번뇌를 완전히 소멸하고 열반을 얻느니라.

비구들아, 만일 이 법을 지혜로써 깊이 사유하고 관찰하고 분별하여 안주하면 그것을 ‘믿음(正法)에 따라 행동하는 것’이라 한다. 그는 성도(聖道)에 들어 범부의 지위를 초월하였으니, 죽기 전에 반드시 수다원과를 얻을 것이다.

비구들아, 만일 이 법을 기운이 왕성한 지혜[增上智慧]로써 깊이 사유하고 관찰하여 인정하면 그것을 ‘법에 따라 행동하는 것’이라 한다. 그는 성도(聖道)에 들어 범부의 지위를 초월하였으니, 죽기 전에 반드시 수다원과를 얻을 것이다.

비구들아, 이 법을 참다운 바른 지혜로써 평등하게 보면 몸을 나라고 보는 소견[身見]과 금계에 대한 집착[戒取]과 의심[疑], 이 3결(結)이 다 끊어진 줄을 알게 될 것이니, 비구들아,

이것을 수다원과라 한다. 그는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바른 깨달음으로 바로 나아가 일곱 번 천상과 인간에 태어난 뒤에 완전히 괴로움을 벗어날 것이다.

비구들아, 만일 이 법을 참다운 바른 지혜로써 평등하게 보아 마음에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면 이를 아라한(阿羅漢)이라 한다. 그는 모든 번뇌가 이미 다하고, 할 일을 이미 마쳤으며, 무거운 짐을 버리고, 자기의 이익을 완전히 얻고, 모든 결박[結]을 끊고, 바른 지혜로써 마음이 해탈하느니라.”

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,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.

---

본 문서는 dhamma.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.